

단일 후보+공동위원장 체제... '시민공동정부 전환추' 가동

강기정·민형배·최영호, 단일화 이후 시민공동정부 로드맵은

시민결정 행정시스템·현안 공론위 도입 등 골자
광주시장 결선투표제 도입 따라 경선 쉼법 복잡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가 시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시정'을 펴는 내용의 시민공동정부 로드맵을 밝혔다.

이들 후보는 4일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시민공동정부 전환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는 단일후보와 남은 후보 2명이 참여하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공동정부의 시정운영 가치를 분권·혁신·민주·성장으로 정했다"며 "시민이 참여하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협치를 통해 시민공동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 이후 첫 지방선거를 광주정치의 새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들은 "광주정치는 낡은 관료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역동하는 정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세 후보가 단일후보로 뭉쳐 광

주시민이 바라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공동정부의 로드맵도 공개됐다.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플랫폼을 만들고,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 정치인들과 시민이 참여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플랫폼을 만들고, 정치 페스티벌 등을 통해 정치인과 시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공동정부의 주요 정책으로는 ▲시민결정 행정시스템 도입 ▲온라인 시민회의 ▲시민정책위원회 ▲정당 및 시민인사추천제 도입 ▲광주 협치 라운드테이블 운영 ▲의원지원센터 설립 ▲현안해결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결성 등을 제시했다. 또 해마다 광주의 비전을 마련하는 '광주비전대회'를 열고 시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광주형 목요일'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단일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시민공동정부 전환 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단일 후보와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분권, 혁신, 민주, 성장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3가지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후 8시까지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각각 1000명씩 선호도 여론조사를 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사회단체 속의배심원 23명의 최종의견과 세 후보의 입장 등을 더해 4일 오전 11시 단일후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단일후보 결과 예상은 후보마다 지난 잠정이 달라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한, 중앙당이 광역단체장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전격 도입하면서 단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경선 쉼법이 복잡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후보 단일화에 나선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단일화와 컷오프를 거지면서 단일 후보에 대한 관심도 상승과 경선 후보들이 줄어들면서 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당원과 시민들에 대한 지지율 향상성이 있는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될 경우 향후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영호·강기정·민형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안철수 대항마 이달 중순 결정...서울시장 3자구도 예상

6·13 지방선거 17개 시·도지사 대진표 요약

지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서울	박영선·박원순·우상호 경선	김문수 유력	안철수 (4일 출마 선언)	
부산	오거돈	서병수	이성권 예비후보등록	
대구	이승찬·이상식·임대운 경선	권영진·김재수·이재만·이진호 경선 (8일 확정)		
인천	김교흥·박남춘·홍미영 경선	유정복		
광주	7명 경쟁, 단일화결정 후 공천			
대전	박영순·이상민·허태정 경선	박성호		
울산	송철호	김기현		
세종	이춘희			
경기	양기대·이재영·전해철 경선	남경필		
강원	최문순	정창수		
충북	오제세·이시종 경선	박경국	신용환 예비후보등록	
충남	복기왕·양승조 경선	이인제		
전북	김춘진·송하진 경선			
전남	김영록·신정훈·장만재 경선		박지현 거론	
경북	오종기	김광림·남유진·박영재·이철우 경선 (8일 확정)		
경남	김경수	김태우 유력		
제주	김우남·문대림 경선	김방훈	원희룡 (무소속 출마 검토)	

광역단체장 대진표 요약

전북 민주당 맞설 후보 없어
경남 김경수·김태호 격전
한국당, TK서 서로 경합

6·13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주요 지역의 단수후보와 경선후보를 확정했고 자유한국당 공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우상호 의원 간 경선을 통해 이달 중순경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우파 결집 전략에 따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출마를 선언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한국당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정복 인천지사를 통해 수성에 나선다. 민주당은 경기도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인천은 박남춘 의원,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간 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못지 않게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경남에 김경수 의원을 단일후보로 냈다. 이에 맞서 한국당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경우 한국당이 서병수 현 시장을 공천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남 부산시장 후보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확정하면서 부산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리턴매치로 진행된다.

울산은 한국당 김기현 시장 대 민주당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간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충청권의 여야 대결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대전(박영순·이상민·허태정 후보), 충남(복기왕·양승조 후보), 충북(오제세·이시종 후보) 단체장 후보를 2~3인 경선을 통해 선출

키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전에는 박성호 전 시장, 충북에는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을 공천했다. 충남지사는 이인제 전 의원이 나선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남 이춘희 현 시장을 공천기로 한 가운데 한국당은 송아영·이성용·홍창호 후보자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강원도는 민주당의 최문순 지사와 한국당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을 경쟁을 벌이게 됐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에서 송하진 도지사과 김춘진 전 의원이 후보 자리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양당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보수의 안방'인 TK는 한국당 후보끼리 경합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지사를 놓고는 바른미래당 원희룡 지사와 민주당 후보 간 경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우남·문대림 후보 간 2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며 원 지사는 선거 전에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평화당, 후보 속속 확정
전남지역 기선제압 나서

민주평화당이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4명 등 총 40명의 후보를 확정하는데 이어 2차 공모에 들어갔다.

3일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천 확정지역을 제외한 전남 선거구에 5일까지 후보자 2차 공모를 한다.

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평화당은 앞서 지난 2일 박용률 목포시장 후보를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임호경 화순군수 후보, 이윤행 함평군수 후보를 각각 공천자로 확정했다.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해 적극적인 표방 같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출마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에 나올 수 있다면 이들과 함께 '평화당 돌풍'도 예견된다.

평화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전남은 평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구축돼야 균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도민에게 평화당은 아쉽고 아픈 자식이다. 잘된 자식(민주당)보다 안타까운 자식을 보듬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무안공항 출발

일본 기타큐슈, 마츠모토(나가노),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무안 ↔ 일본 기타큐슈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3일(일)부터 정기편 운항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저렴한 아가가세 펜션 숙박(매주 일요일 출발)

북큐슈 2박3일 특가(아가가세 고급온천 펜션) **439,000원**~
아마구치 [실속] **699,000원**~ [풍격] **769,000원**~

직장인들을 위한 매주 금요일 출발

북큐슈 2박3일(고급료칸 1박) [실속] **749,000원**~ [풍격] **799,000원**~
아마구치 2박3일(료칸 1박) [실속] **769,000원**~ [풍격] **799,000원**~

여유있는 3박4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출발

[실속] 북 큐 슈 3박4일 **699,000원**~
[풍격] 북 큐 슈 3박4일 **799,000원**~
[실속] 아마구치 3박4일 **699,000원**~
[풍격] 아마구치 3박4일 **799,000원**~

무안 ↔ 마츠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 관광]

2018년 5월 18일(금)부터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마츠모토(13:10) / 마츠모토(13:30) - 무안(16:20)

[풍격] 나가노,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3일(고급료칸 숙박)
일요일 출발 **938,000원**(5/20) **1,038,000원**
금요일 출발 **998,000원**

[풍격] 나가노, 나고야,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4일(고급료칸 숙박)
화요일 출발 **1,198,000원**

★ 알펜루트 전코스 관광(실버 기간: 4/15-6/22)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 전 코스관광)

★★★ 일본 최고의 절경 북 알프스 관광 ★★★

★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역에서 다테야마역까지
케이블카, 고원버스, 로프웨이 등 산악루트를 이동하며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는 4시간의 산책코스
(※ 웅장한 북알프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신호타카 로프웨이 탑승 포함)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8일(금) 이후 쭈우욱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준특급호텔 기준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호이안·하트프링
3박4일(화) **66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팁·노옵션]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노팁·노옵션] 하트프링온천 + 바나산국립공원 + 호이안야경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년 기준, 여행지역별 기밀(여행비밀) - 1학년, 국내여행 5년만, 관광진흥법기밀, 관광 및 무역 이용,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학년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지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호텔, 식사/기타)외 봉사료, 선배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서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